

매화 감상하며 여유와 안식 얻어 가세요

2017 文化로 물들다

4 양림동 ‘윤희매 문화관’

6년간 비어 있던 한옥 수리
‘윤희매’ 작가 김창덕씨가 문 열어

매화 작품 전시...음악감상실·다실 운영
시범운영 중...매화 피는 4월 정식 개관



김창덕씨가 '윤희매 문화관'에서 작품과 음악 감상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 선조들은 수많은 식물 중에서도 매화를 ‘군자의 꽃’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조선시대 강희안도 화목 9품론을 언급하며 매화를 1품으로 칭했습니다. 문화적 감성이 풍부한 양림동에서 품격 높은 매화를 감상하며 여유와 마음 안식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광주시 남구 양림동 관광안내소에서 길을 따라 마을 안쪽으로 걷다보면 붉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한옥이 나온다. 입구에서 서너 계단 밑으로 펼쳐진 마당 중간에는 높이가 20m쯤 될지언정 거대한 후박나무가 자리잡고 있다. 시원하게 설치된 커다란 창문과 창호지문, 나무를 비추는 환한 조명 등은 도심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풍경이다. ‘윤희매’ 작가로 유명한 다음 김창덕(52)씨가 만든 ‘윤희매 문화관’이다.

김창덕 관장은 원래 이장우 고택 사랑채에 머물며 윤희매(밀랍으로 만든 매화) 작업을 선보였다. 계약 기간이 끝난 지난해 말 전시관과 다실, 음악 감상실을 겸한 공간을 모색하던 중 현재 위치에 문화관을 열었다.

김 관장은 “마땅한 자리가 없어 ‘양림동을 떠날까’하고 생각도 해봤지만 윤희매 분위기에 맞는 마을은 양림동 뿐이었다”며 “다행히 어느 수필가가 비어있는 자신의 한옥을 사용하라고 배려해줘 문화관을 조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6년간 비어 있던터라 고즈넉한 결모습과는 달리 집 내부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어수선한 상태였다. 김 관장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을 수리하고 정리했다.

전체 75㎡(23평) 방 4칸 중 3칸을 합쳐 약 20명이 앉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확보했다. 전시장 겸 음악감상실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이곳에는 윤희매 작품 10여점을 비롯해 지난 30년간 모은 LP·CD 4000장을 비치했다. 한편에는 조명으로 달을 표현한 윤희매 작품과 함께 진공관 앰프와 턴테이블을 설치했다. 의외로 한옥 벽면은 소리를 잘 반

사하며 어느 음악감상실 못지 않은 음질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달 28일에는 남구관광청이 주관한 송년음악회가 열리기도 했다.

나머지 1칸은 다실로 사용한다. 윤희매를 감상한 후 김 관장과 차를 마시며 명상 시간을 갖는 자리다.

무엇보다도 신경 쓴 부분은 조경이었다. 원래 있던 후박나무 주위에 다양한 식물을 심어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모습이다. 나무를 비추는 조명을 여러개 설치해 밤에도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내부 어느 곳에서도 정원이 잘 보이도록 가로 2m·세로 1.5m 유리창을 3곳에 달았다.

김 관장은 “윤희매 문화관은 격이 있게 될 수 있는 장소”라고 소개했다.

공식 개관식은 매화가 피는 오는 4월로 잡았다. 물론 개관 전에도 방문해 윤희매를 감상할 수 있다.

문화관은 올해 남구관광청이 주관하는 ‘양림동 근대예술여행’ 사업 거점으로 사용되며 ‘윤희매 찾잔에 잡기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 관장은 이와 더불어 정기적으로 작은 음악회, 윤희매 퍼포먼스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 사람들이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윤희매 아트상품을 개발하고 차 판매도 계획하고 있다.

“1000원짜리 지폐를 펴보세요. 매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매화 향기를 주고 받았죠. 최근 온 나라가 혼란스러워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역경을 극복하면 곧 훈훈한 봄이 옵니다. 사시사철 피어있는 윤희매와 차를 함께 즐기며 매화 향기 가득한 삶을 꿈꿔봅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서 불교미술사를 전공한 김 관장은 조선 정조 때 실학자 이덕무(1741~1793)가 남긴 문헌을 보고 지난 1996년부터 윤희매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2015 밀라노 트리엔날레, 국립중앙박물관 초선행화전(2015) 등에 참여했다. 문의 010-8604-207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다에니 ‘너의 이름은.’ 감독 신카이 마코토 대표작 3편

CGV 광주터미널서 다시 관객 만난다

관객 160만명을 넘어서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의 신카이 마코토 감독 대표작이 CGV 광주터미널에서 재개봉됐다.

이번에 다시 관객들을 만나는 작품은 ‘언어의 정원’, ‘별을 쫓는 아이-아카르타의 전설’, ‘초속 5센티미터’ 등 세 편이다.

‘초속 5센티미터’(2007)는 벚꽃이 떨어지는 속도에서 착안한 로맨스를 다룬 세 편의 오프닝 애니메이션이다. ‘벚

꽃 이야기’, ‘우주비행사’, ‘초속 5센티미터’ 세편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언어의 정원’(2013)은 비 오는 날의 감성을 그린 애니메이션으로, 구두니자와 이너를 꿈꾸는 15살 고등학생 다카오와 베일에 가려진 여인 27살 유키노의 우연한 만남을 그린 작품이다.

‘별을 쫓는 아이-아카르타의 전설’(2011)은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전설의 도시 아카르타를 향한 신비한 모험을 그리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



‘언어의 정원’

국립남도국악원 을 연수·체험사업 시작

국립남도국악원(원장 정상열)은 2017년 각종 연수, 체험 사업을 진행한다.

남도국악원 한국문화체험 ‘한국을 가슴에 품다’는 재외 한국문화원 또는 한국 교육원의 추천을 통해 10개국 20개 단체가 참여한다. 이 체험은 재외동포 2·3·4세와 한인 입양인, 한국 전통음악에 관심 있는 재외동포와 관련된 외국인에게 한국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시작한 국악교육 직무연수는 전국의 유초중등 교원 38명이 참가하고 있다. 연수과목은 국악이론과 사물장구, 해금, 판소리, 한국무용 등 국악실기, 국악공연관람 그리고 문화탐방으로 구성된다. 연수 체험 문의 061-540-40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예술위 창작 작품 6편 ‘TV캐스트’ 전막 생중계

우수 창작 작품들을 공연장이 아닌 웹이나 모바일을 통해 즐기는 기회가 마련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우수 창작 작품 6편을 3월 10일까지 네이버의 동영상 서비스인 ‘TV캐스트’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인 ‘브이 라이브’를 통해 전막 실황 중계한다고 10일 밝혔다.

창작뮤지컬 ‘경성특사’(18일), 창작

연극 ‘신인류의 백분토론’(2월 12일)·‘혈우’(2월 16일)·‘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3월 9~10일), 전통예술 ‘거문고 스페이스’(3월 3일) 등이 그 대상이다.

위원회는 “온라인으로 좋은 공연을 즐길 기회”라며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창작공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광식·양계남·김재일·하철경·김병모·정 철·김효삼·박은수·고희자·신은하·한갑수·장규오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12인 초대전

“문화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기간: 2016. 12. 23(금) ~ 2017. 1. 23(월)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M갤러리

세계조각·장식박물관 ☎ (062) 222-0072 (예술의거리 서문입구)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교회 행사 전문 호텔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http://www.baegyanghotel.co.kr/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대형 웨딩홀 준공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화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